추운 겨울, 자비나눔으로 온기 전해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연탄 2만장 · 김장김치 3500kg 전달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회장 박수관)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대표 박수관)은 구랍 23일 사랑의 연탄 및 김장김치 전달식을 진행했다. 연탄은 총 2만장이며 김장김치는 3500kg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3300만원에 해당한다.

연탄 나눔을 위해 동참 회원들은 직접 장갑을 끼고 배달도 자처했다. 연탄 배달을 마무리 하자 해당 세대 어르신이 현장으로 나와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르신을 본 회원들은 건강하시라며 인사했고 박수관 회장은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를 위로하며 성금을 즉석에서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을 선사했다.

연탄은 부산진구 부암동 노인 부부세대(부산진구 백양대로 42번가길 30)에 배달됐고 전문 업체가 소외 이웃 및 독거어르신 등 각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구랍 23일 사랑의 연탄 및 김장김치 전달식을 진행했다.

아울러 김장김치는 부산진구청에 전달됐으며, 구청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 총350세대에게 전달한다.

전달식에는 박수관 회장을 비롯해 임원진과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이 동참했다. 박수관 회장은 이번 나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는 "이번에 실시하는 사랑의 연탄과 김장김치 전달 행사는 코로나19와 장기 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제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다"며 "그 어느 해보다 어렵고 추운 겨울을 지내야 하는 이웃들에게 나눔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줘야한다며 박수관 회장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서은숙 구청장은 "너무나 힘든 시기이다. 어르신들에게 나눔으로 위로해주신 회장님과 임원진들께 감사하다"며 "나눔의 크기도 넉넉해서 부산진구 모두를 따뜻하게 데울 수 있을 것 같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전했다.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와 맑고향기롭게 부산모임은 기부와 봉사를 생활신조로 삼고 있다. 매년 장학금 전달, 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과 성품 전달, 섬마을 의료봉사, 사랑의 연탄 및 김치 전달, 설과 추석맞이 이웃돕기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락서암은 구랍 23일 대학생 등 16명에게 총 1000만원을 전달됐다.

제2회 락서암장학회 장학금 전달

부산 서구 동대신1동에 위치한 락서암이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래 불사를 위해 장학금을 전달했다.

락서암(주지 수월)은 구랍 23일 락서암 대웅전에서 장학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장학금은 대학생 5명, 고등학생 7명, 초등학생 4명 등 16명에게 총 1000만원을 전달됐다.

학생들은 불자로 신행생활을 하며 선한 활동으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을 추천받아 선별했다.

주지 수월 스님은 학생들에게 "바르게 마음을 잡고 말하고 행동하면 주변에 아무도 적이 없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하면 아무것도 어긋나는 것이 없다"며 "가정과 사회를 이끌어가는 훌륭한 인재가 되시라"며 격려를 전했다.

한편, 락서암은 자비 나눔을 위해 지역 독거어르신을 위한 든든한 지원처로 활동해 왔다. 인연이 된 어르신이 사찰에서 쉴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했으며 마지막 장례 의식까지 집전해 따뜻한 회향을 선사했다. 장학금은 주지 수월 스님이 일체 사비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화엄승가회, 부산불교교육대 등 전기요 나눔

화엄승가회(회장 자인)와 부산불교교육대학(학장 범혜)은 구랍 17일 부산 영도구청 소회의실에서 '희망 2021 행복나눔 전기요 전달식' 을 개최했다. 전기요는 총 200장(1000만원 상당)이며 전기요는 화엄승가회 스님들과 부산불교교육대학 재학생과 동문, 용석사 주지 일공 스님 등 스님들과 불자들이 십시일반 모금해 마련했다.

전달식은 인사말 및 전기요 전달 및 기념사진 촬영으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 상임부회장 일공 스님(용석사 주지) 및 회원 스님들과 김철훈 영도구청장을 비롯해 권혁란 부산불교교육대학 총동창회장, 김진호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생회장 등 20여명이 동참했다.



화엄승가회와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구랍 17일 부산 영도구청 소회의실에서 '희망 2021 행복나눔 전기요 전달식' 을 개최했다.

화엄승가회 회장 자인 스님은 "동참해준 모든 분들에게 다신 한 번 더 감사하며 영도구에 있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새해를 맞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범혜 스님은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전기요처럼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이 전해지고 함께 코로나 19를 극복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용석사, 새터민에게 방한품 선물

용석사(주지 일공)는 구랍 23일 용석사 경내에서 새터민을 위한 전기요 전달식을 개최했다.

용석사는 새터민 31가구에 총 33개의 전기요를 전달했으며 전달식은 △개회사 △내빈소개 △인사말 △전기요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전달식에는 용석사 주지 일공, 원주 정현 스님, 안천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영도구협의회 수석부회장, 관내 새터민 등이 참석했다.

주지 일공 스님은 "고향을 떠나서 멀고 먼 곳으로 와 외롭고 힘이 들 것이다.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녹이시라고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건강하고 축복받는 행복한 나날 보내시고 앞으로 여러분과 인연은 소중히 이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선운사복지재단 독거노인에 난방품 전달

조계종 선운사복지재단(대표이사 경우)이 위기 및 독거어르신 지원을 위한 겨울난방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 구랍 23일 고창군노인복지관 게이트볼장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조계종선운사복지재단 법인대표이사 경우 스님, 유기상 고창군수, 프로그텍서비스 변지훈 대표, 지원대상자 2명 등이 참석했다.

지원물품은 따뜻한 겨울을 위한 전지장판, 겨울이불, 김장김치 등으로 위기 및 독거어르신 184여 명에게 전달됐다. 이날 선운사복지재단은 고창군 14개 읍면 독거어르신 4,530명을 대상으로 초콜릿 1,000박스와 1500만원 상당의 마스크도 전달했다.



경우 스님은 "코로나19로 개별 복지서비스의 비중이 높아졌다"며 "찾아가는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운사는 구랍 24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20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하며 나눔의 온도에 온기를 더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주교도소 교정協, 백설기 떡 나눔

전주교도소교정협의회(협회장 진성.태고종 전북종무원장)는 구랍 18일 전주교도소에 1400명분의 백설기 떡을 전달했다.

기독교, 천주교와 함께 전달된 사랑의 백설기 전달식에는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명예회장 오성택 목사, 부회장 허동은 목사, 기독교 위원장 이계하 목사, 천주교 유영신부, 교정협의회장 진성 스님, 수석부회장 원불교 안현숙 교무, 사무국장 남상준 위원 등 교정협의 회원들과 최병록 전주교도소장을 비롯한 전주교도소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백설기는 코로나사태로 인해 면회가 금지되는 등 어느 때보다 힘든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수형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진정된 자아반성의 기회를 갖게 하는 한편 고향의 떡맛을 보여줌으로서 선한 마음을 북돋아주기 위해 마련됐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진성 스님은 "종파를 초월하여 다종교 시대에서 상호 협력하여 한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해준 종교분과위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대구 대원사, 동지 자비나눔 실천

대구 북구 학정동 신행기도 도량 대원사(주지 현정)는 구랍 21일 동지날에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대원사 주지 현정 스님은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 하는 우리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작은 정성의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19 속히 종식되길 함께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물품은 라면 300박스, 찹살떡 ,팥죽 300인분으로 관내 소방서, 동사무소 등에 전달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2021 謹賀新年 신축년

'恒明의 誦'

"일심의 '진심'을 담아 기도하라.
무슨 일이든 순하게 받아들여
지혜의 눈을 떠라.
혜안을 열어 앞날을 밝게 보라.
신심을 부동으로 하라.
강하게 하라."

- 개조 이또 신죠 -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은 나를 이끌어
번민의 구름을 없애주시네
믿는 마음에 보여주시는
깊은 자비에 감사하자
기도하라, 기도하라
깊은 자비에 南無眞如

- 원주(苑主) 희망의 노래 -

眞如苑 신뇨엔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20개국 42개 ▶ 집회소 : 51개국 930여개
▶ 한국정사 : 서울·부산·제주·창원 ▶ e-mail : shinnyoen@hanmail.net
▶ 서울정사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46 TEL (02)719-6998
▶ 부산정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TEL (051)892-6998